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2호 [주제 제25485호] 주제 105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우리 아이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며 이 땅위에 한없이 파사로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치를 펼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친어머님 사랑에 떠받들리워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가 훌륭히 개건됨으로써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위원장 박정남동지와 야영소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문천시의 경치좋은 바다기슭에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는 강원도의 학생소년들이 누구나 찾아와 야영생활을 마음껏 즐길수 있는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최상의 수준

에서 새로 개건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형성안도 여러차례나 지도해주시였으며 개건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강원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낮과 밤이 따로없는 끝없는 투쟁을 벌임으로써 짧은 기간에 방대한 개건공사를

도자재의 힘으로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야영소의 전경을 훑은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건축물들을 바다를 끼고있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파도를 헤가르는 뿔베로 형

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핌이 뜨겁게 어려있는 이곳 소년단야영소만 놓고보아도 자식들에게 열가지, 백가지 아낌없이 주고싶은 천부모의 심정으로 나라의 제일 좋은 곳들마다에 아이들의 보금자리들을 일떠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첨단 초소로 달려던 야전차를 세우시고 야영가는 아이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미술작품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면서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나온 노래구절이치라고 뜨겁게 외우시며 그처럼 어려운 나날에도 아이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세라 마음스신 장군님의 뜻을 언제나 잊지 말고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우리가 지켜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도서열람실, 전자도서열람실, 종합지식보급실 등을 돌아보시면서 새 세기 발전하는 교육학적으로와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야영기간이 그대로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는 과정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침실, 로리강의실, 식당의 로리실습실, 주방, 식사실, 생일식사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지방자재를 가지고 꾸웠는데 손색이 없다고, 아이들이 바다경치를 구경하면서 식사도 하고 제손으로 밥과 여러가지 음식도 만들어본 야영의 나날을 일생토록 추억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은애국주의교양실, 계급교양실, 전자오락실 등으로 이루어진 회관을 돌아보시며 아이들이 어머수부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모든 요소들을 교양적의의가 있게 꾸리였다고 하시면서 문명한 사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야영소의 문화교양시설과 생활조건을 더 잘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체육관과 해수욕장에 꾸려진 샤워장, 넓고 시원한 운동장을 돌아보시고 모든 설비들과 인공잔디까지도 강원도에서 자체로 생산한것이라는데 대단하다고, 야영생들이 마음껏 뛰놀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할수 있겠다고 기뻐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야영소 구내를 걸으시면서 소나무숲속에 들어앉은 야영소의 경치가 정말 좋다고, 수종이 좋은 나무와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더 많이 심고 가꾸어 주변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며 야영소구내를 교재함으로써 전환시켜 야영생들을 위한 교육장소

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가 훌륭히 개건될수 있는것은 이 땅위에 후대들을 위한 창조물들을 하나라도 더 마련하여 조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그 결연한 인생관을 지닌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마음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도 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힘을 믿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로 뚫고나가면서 소년단야영소

를 훌륭히 개건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곳을 돌아보면서 자신께서 제일 만족한것중의 하나가 바로 땅의 국산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개건공사에 필요한 자체물들을 도자체로 생산하여 리용한것이라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강연도인민들이 발휘한 자력자강의 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아이들이 밝게 웃어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이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던 우리의 아이들을 잘 키워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려같은 은덕이 야영생들에게 그대로 가닿게 함으로써 당의 온정어린 야영소에서 언제나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사를 보내시였다.

당의 인민중심, 인민중심,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평양학생소년궁전 로동자 강예화, 조선국제레전드 려행사 부원 백일심은 뜨거운 열육의 정을 안고 북부건설을 적극 지원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번역원 손정명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있어도 피해지역 인민들과 고향을 함께 나누는 심정으로 지원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북부지역에 보내주었다.

북부피해복구전투가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부투전이라는것을 명심한 통파도지도자 산하단위 로동자 김은별, 경흥지도자 부원 미현란, 산하단위 실장 전지혁, 부원 강은정, 로동자 최은정, 심경희, 평양제1중학교 교원 리경미, 사서 리규원은 많은 자금을 헌납하는 애국적 소명을 발휘하였다.

강원도미술장작사 학술연구원 박경림, 원산시 해안동 46인민반 김백만, 상봉 64인민반 김광실, 원석동 86인민반 주영남, 승리동 33인민반 리선미, 천내군 통파로동자구 36인민반 리선영, 상도군대동관리부 로동자 박성국, 정철민, 김순철, 통천군 장진리 14인민반 함영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행과 아픔을 자기 입처럼 여기고 성실성의로 지원하였다.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쳐가는 당의 은덕을 가슴스스하게 느끼며 신의주야영대학 로동자 독고순희, 평안북도인민혁명 의사 최명일, 평안북도 관문리관 로동자 김송이, 평안남도국도환경보호관리국 산하단위 책임자 림정순,

국도환경보호성 산하단위 책임자 심은숙, 평성시 은덕1동 20인민반 정명철, 송남정년관방 로동자 김명화, 순천지구정년관방합기연구소 산하단위 지대인 권영도, 석탄공업성 산하단위 부원 최희진, 강장 리명철도 북변방 인민들의 생활을 돌보아주었다.

자강도림업관리국 파장 배영삼, 회천시 전진동 6인민반 정영순, 만포방사공장 지대인 주복순은 전부모, 전형제들을 위하여 심정으로 수많은 생활필수물들을 보내주었다.

국가계획위원회 산하단위 부원 김태민, 청진시 송평구역 풍호정농장농장 농장원 장정순, 김책공기계공정장야소 소장 황미옥, 평성시 포항구역가내측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옥희, 함경북도혁명사적관 로동자 강봉숙, 평성시 모항상점 지대인 미희경, 부원 김영호,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강과장 황승민, 단천지구방업총국 산하단위 소장 김경호, 함흥시 동흥산구역 서문1동 51인민반 김철옥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살림집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자재와 물자들을 지원하였다.

북변방의 인민들이 하루빨리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할 마음안고 해산시 해산동 41인민반 윤수경, 용진광산 차광수청년동지대 대장 리규철, 로동자 김남철, 함성부, 사리원시 은밀동 조광년명부위원장 김영숙도 그들에게 뜨거운 열육의 정을 기울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들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함북도 북부피해복구건설에서 전위투파의 기적을 창조한 그 정신, 그 기적으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적극 헌신해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였다.

본사기자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백두대지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려나가자

삼지연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삼지연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6일에 진행되였다.

그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함께,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삼지연군당위원회 위원장 리철의 보고에 이어 삼지연군 인민위원회 사무장 최봉길, 삼지연군 농업경영위원회 기사장 박철표, 삼지연군혁명사적지관리소 소장 조정숙, 삼지연학생소년궁전 부총장 심기운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의 그 바보신 속에서도 지난 11월 눈보라치는 북방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군인의 여러 부문 사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상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어떤 현지투파가 돌아치고 세상이 원만해 변한다 해도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높이 추켜드셨던 혁명의 불은기를 절대로 놓지 말고 장군님의 넘쳐나 이 땅에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인, 사회주의강

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들은 삼지연군문화회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회정치활동과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인민들과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으로 굳건히 무장시키고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소양을 지닌 인민들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만족를 표시하시면서 이곳 궁전에서 울리는 아이들의 맑고 명랑한 웃음소리와 노래소리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음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만족를 표시하시면서 이곳 궁전에서 울리는 아이들의 맑고 명랑한 웃음소리와 노래소리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음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댈쳐입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때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행이며 기쁨입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군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성지에 서 사는 궁지와 지부심을 안고 헌겁의 위력으로 혁명의 성실 백두산아래 첫 동네인 삼지연지구를 태양의 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